

## 일제강점기에 서양인이 본 한국의 전통음악

### Korean Traditional Music from the view of Foreign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정 경 란  
한국학중앙연구원

Chung Kyung Rha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요약

미국인인 J.L.Boots(1894-1983)는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1940년에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음악과 악기를 세계에 영어로 소개하였다. 당시 급속하게 밀려오는 서양 음악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성과 전승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부츠는 이 논문이 서술했으며, 아직까지도 이 논문이 한국음악계에 소개된 적이 없어, 필자는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하여 외부자인 서양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한국의 음악과 악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서양인인 부츠의 한국음악에 대한 관점과 현 한국음악계의 시각을 비교하여 관찰한 논문이다.

## I. 서론

부츠(J.L.Boots)는 1940년에 「한국의 악기와 한국음악 소개(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논문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저널(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집필하여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소개하였다.[1] 영어로 한국음악의 역사와 악기를 소개한 서양인은 처음이었으며, 아직까지도 이 논문은 한국음악계에 소개되지 않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츠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츠는 1921년 3월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치과과장직을 맡았고,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무기와 갑옷을 다룬 「Korean weapons and armor」[2] 논문도 집필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이 논문에서는 부츠의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논문을 통해서 서양인 부츠가 본 한국의 음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서양인이 본 한국의 음악

J.L.Boots[3]는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을 집필하여 갑자기 도입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서양음악으로 인해 전통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우 전통음악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집대성하고 기록해야한다고 역설하여, 본인이 보고 느끼고 조사 연구한 한국음악을 고조선부터 삼국, 고려, 조선, 그리고 1939년까지 기록하였으며, 부

츠가 서술한 한국음악의 역사와 악기는 다음과 같다.

### 1) 삼국 이전

부츠는 중국 측 자료들을 섭렵하여 한국의 삼국 이전 음악을 중국의 유교와 연관시켰다. 부츠는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 유교의 영향이 있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예악의 영향을 신라이후로 보고 있으나, 부츠의 연구에서 삼국이전 음악에 중국 예악의 영향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2) 삼국시대

부츠는 고구려의 거문고, 백제의 횡적·막목·공후, 신라의 대금·야금이 중요한 악기였으며 신라 때 경주의 성덕대왕이 음악과 함께 했음을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신라시기의 중국의 예술은 절정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그 반감으로 예술에 무관심하게 되어 유교사원 음악 외에는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 안에 중국음악을 보존해옴으로써 중국 예술의 진수를 한국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음악문화를 전수하여, 중국과 일본사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3) 고려시대

부츠는 고려 예종 때 송 휘종이 전해준 악기와 악보 외에는 새로운 작곡도 없다고 하였으나, 한국음악사에서 당악, 아악 외에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의 향악이 전

해지고 있어 부츠는 고려 때의 음악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츠는 또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중인 『교성승람』을 통하여 옥피리 역사를 말하고 있으므로, 한국음악계에 거론되지 않은 『교성승람』 사료를 통한 옥피리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조선과 일제강점기 시대

부츠는 조선시대에는 한국음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의 한글 창제, 용비어천가·정대업·보태평창악, 박연의 악기제작, 세조의 정대업·보태평 개편, 성종의 『악학궤범』 편찬 등의 업적이 있었고, 남효온이 국가 의례에 재즈 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1800년대의 명완벽은 아악의 전통을 고수하고, 1900년대 초의 함화진에 의해 그나마 국악이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부츠가 한국에 거주했던 시기인 일본식민지시대에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고,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한국의 국가적인 제반 의식을 폐지됨으로써 음악계가 위축되고 악사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음악인들이 전통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부츠는 이렇게 보존된 한국음악을 보게 되어 기쁘며, 전통문화를 보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 5) 부츠가 본 한국의 악기

부츠는 이왕직악부의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한국의 악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악기는 8가지의 재료 즉 금속(金), 돌(石), 비단(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의 분류가 있고, 타악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순이라고 하였다. 악기 설명에 관해서는 당시 이왕직악부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악기자체의 설명은 현재와 큰 차이점은 없으나 악기의 사용 및 연대에 있어서는 부츠가 인용자료를 서술하지도 않았고, 연도도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부츠의 악기설명자료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당시 한국의 악기를 영어로 소개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Ⅲ. 결론

부츠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음악계가 미처 연구하지 못하거나 음악사에 기술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였고, 부츠를 통하여 서양인 피아노니아가 통한 외부자적 시각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내부자인 한국 음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사료로써 발견되지 않은 부츠의 논문을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향후 부츠의 이론이 한국음악 학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 ■ 참고 문헌 ■

- [1] J.L.Boots,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X』, 1940, 1-32쪽.
- [2] J.L.Boots, 「Korean weapons and armor」,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III』 part II, 1934, 1-37쪽.
- [3] 대한기독교서회,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7, 1921, 66쪽.